

무명이던 헤리·설현·쯔위

이젠 모르는 사람이 없다



설현

헤리... '응팔' 인기 국민여동생으로
설현... 1년 광고 매출 60억 'CF퀵'
쯔위... 대만기 논란 후 인지도 상승

불과 얼마 전까지 무명이거나, 인지도가 낮았던 소녀들이 이젠 온 국민이 다 아는 화제의 인물이 됐다.

수지나 아이유가 '국민 여동생'의 수식어를 차지하며 인기를 끌 때 걸스데이의 헤리(22)는 주목받지 못했고, AOA의 설현(21)은 새로 얼굴을 비춘 걸그룹 멤버에 불과했다. 트와이스의 쯔위(17)는 아예 데뷔도 하기 전인 '무명'이었다.

◇'덕선이' 헤리, CF 퀵 등극... "응팔" 찍고 톱스타로 우뚝 = 헤리가 대중적으로 주목받은 건 지난 2014년 MBC TV 예능 '진짜 사나이' 출연이었다.

1년여가 흘러 헤리의 매력은 '응답하라 1988'에서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덕선을 신명나게 소화한 헤리는 스타로 우뚝 서며 CF 퀵으로 등극했다. 광고업계에 따르면 헤리는 6개월 단발에 4억원, 1년에 5억원의 모델료를 받는다. '진짜 사나이' 이후 모델료가 뛰었고 다시 2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헤리는 상쾌한, 푸마, 다방, 너구리, 가나초콜릿, 알바몬, 세븐일레븐, 볼스원 등 단독 광고 13개를 찍어 대략 6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걸스데이 멤버로도 서든어택, 미장센, 11번가, 사이닉 등 15개의 광고를 찍어 헤리가 출연하는 광고는 총 28개에 이른다.

◇'여신 아이돌' 설현, 광고 매출 60억... "탄력받은 라이징 스타" = 헤리가 상승세의 터닝포인트가 있었다면 '여신 아이돌' 설현은 사실 특별한 계기가 없었다.

설현이 예능에 고정 출연한 것도 지난해 KBS 2TV '용감한 가족'으로 이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저조했다. 지난해 1월 개봉한 영화 '강남 1970'에도 출연했지만 영화 역시 흥행하지 못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설현의 인기를 거품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설현은

지난해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인물로 꼽혔고 '여신 아이돌'로 불리고 있다.

단아한 이미지의 설현은 '용감한 가족'에서 맨손으로 닭을 잡고 며칠간 머리를 안 감는 털탈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눈에 들어왔다. 여기에 AOA가 2014년 '짧은 치마'와 '단발머리'를 시작으로 지난해 '심쿵해'를 크게 히트시키며 설현은 자연스럽게 '남심'을 설레게 했다.

잡재민 인기가 외부로 입증된 건 설현이 지난해 출연한 SK텔레콤 광고다. 대리점 출입문 바깥에 부착한 설현의 사진이 도난당하는 등 매출 증대를 넘어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지난해 설현과 6개월 광고 계약을 한 SK텔레콤은 그해 11월 6개월 재계약을 했고 오는 22일 '설현폰' 2탄을 출시한다.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설현이 현재 모델로 활동 중이거나 계약이 완료된 광고는 SK텔레콤을 비롯해 엔터시스, 서든어택 등 총 12개다. A.O.A 멤버로도 10개 광고에 출연 중이거나 활동이 예정돼 총 22개 브랜드 모델료 얼굴을 내민다.

설현의 모델료 역시 헤리와 같은 수준인 1년에 5억원 가량이다. 설현은 주로 1년 단위 계약을 하며 모델료가 5억원이 넘기도 해 12개 광고로 최소 6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쯔위

◇

'제2의 설현' 쯔위...

"소용돌이 이겨내면 크게 성장" = 쯔위는 IG플러스가 '설현폰'에 맞서

'제2의 설현', '설현 대항마'로 불렸다.

쯔위는 트와이스 멤버를 뽑는 서바이벌 프

로그램 때부터 예뻐 외모로 주목받았다. 이 프

로그램을 통해 데뷔 전 인지도는 쌓은 트와이스

가 지난해 10월 첫 앨범을 내자 가요계의 기대

대십리가 높았고 광고계가 발 빠르게 화답했다.

데뷔곡 '우아하게'(OOH-AHH하게)는 차트

역주행을 해 가요 프로그램 1위 후보까지 올라

활동을 끝낸 이들이 다시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

그중에서도 쯔위는 대만 멤버였지만 예뻐

외모로 가요계에서 일찌감치 입소문이 퍼졌다.

빠르게 인기몰이를 해가던 그는 뜻하지 않게

국내 한 인터넷 방송에서 대만 국기를 든 것이

중국에서 '대만 독립지지자'란 논란으로 번지자

큰 암초를 만났다.

중국에서 누리꾼의 반발을 사다가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와 쯔위가 몇 차례에 걸쳐 사과

사과하자 이제는 다시 대만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형국이다. 하지만 쯔위의 행동에 정치적 인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많은 이들이 알고 있어

위기는 점차 벗어날 수 있으리란 전망이다. 또 '이

도치 않게' 이 사건으로 쯔위가 아시아 권역에서

너무 유명해져 이 시련만 잘 극복한다면 대

형 스타로 탄생할 잠재력이 있다는 평가다.

“엄마처럼 훌륭한 연기자 되고 싶어요”

고 최진실 아들 환희 '위대한 유산' 출연



고(故) 최진실의 아들 환희(15)가 방송에서 “엄마처럼 훌륭한 연기자가 못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환희는 21일 밤 11시10분 방송되는 '위대한 유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제작사 코엔이 20일 전했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환희는 함께 출연하는 김구라의 아들 MC그리(동현·18)와 아궁이 앞에서 장작불을 지피며 “집안에 나 말고 남자가 없다. 장남으로서 동생도 챙겨야 되니 부담이 된다”면서 “엄마처럼 훌륭한 연기자가 못되면 어쩌지라는 걱정도 된다”고 토로했다.

환희는 엄마의 뒤를 이어 연기자의 꿈을 키우고 있다. '위대한 유산'은 강원도 홍천의 시골 마을로 내려간 유명인의 자녀 6명의 시골 적응기를 그린다. 환희와 MC그리를 비롯해, 야구선수 홍성흔의 딸인 아역 배우 화리(11)와 아들 화철(8), 농구스타 출신 현주엽의 형제 준희(7)·준욱(6)이 출연한다.

'강남스타일' 유튜브 25억뷰 돌파

싸이를 '월드 스타' 반열에 올린 세계적 히트곡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25억 건을 돌파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20일 새벽 조회수 25억 건을 넘어섰으며 오전 8시 기준으로 조회수 25억 18만 7627건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2012년 7월 발표된 정규 6집 수록곡인 '강남스타일'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켰으며 지난해 8월 유튜브 조회수 24억 건을 유튜브 사상 최초로 돌파한 바 있다. 이어 약 5개월 만인 이날 25억 건을 넘어섰으며 한 번 기록을 수립했다.

앞서 19일에는 싸이의 정규 7집 수록곡 '대디'(DADDY)의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1억 건을 돌파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⑥ 40 코미디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30 KBC 모닝와이드
⑧ 00 아침 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⑨ 00 신문이아기 들쭉구 쇼+	30 KBS 뉴스	00 TV소셜 <별이 되어 빛나라>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⑩ 20 시사 인사이트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	4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50 KBC 생활뉴스
⑪ 30 나는 몸신이다(재)	00 KBS네트워크특선 필통 55 안성 우리말	00 일일 드라마 <다 잘될 거야>(재)	00 주말특별기획 <내 딸 금사월>(재)	10 닥터 365 15 글로벌 문화유산 50 SBS 12 뉴스
⑫ 4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12	15 인간극장 스페셜	20 MBC 정오뉴스 20 수목미니시리즈 <한 번 더 해피엔딩>(재)	45 닥터 365 55 남도의 보물 100선
① 50 뉴스특급	00 역사저널 그날(재) 50 별별가족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2016 리우올림픽 리듬제조 국가대표 선발전	30 2016 리우올림픽 리듬제조 국가대표 선발전	20 세상발전 유레카
② 00 가요무대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30 내 품에 라바와 친구들 스페셜	00 건강클리닉
③ 00 이언경의 직언직실	00 미국의 부활 55 튜튼생활제조	00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30 자동차부착식 위키	00 MBC 뉴스 10 헬로킴지 사이클스 55 프리파라	00 3시 뉴스 브리핑
④ 3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아름다운 청춘, 10인의 도전	00 TV 유치원 30 이욱정PD의 요리인류 키친 40 동물의 세계	25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00 고향이 보인다 30 푸리가 탐구 생활
⑤ 50 김승연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10 제20대 총선 정강정책연설 <새누리당> 30 아성일기 40 남도지오그래피	00 위기탈출 넘버원(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바이클론즈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⑥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KBC 생방송 투데이
⑦ 10 개밥주는 남자(재)	00 KBS 뉴스7 30 한국인의 밥상	50 일일 드라마 <다 잘될 거야>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00 시사저널 탐구부담 20 일일드라마 <내일의 삶>
⑧ 30 서민감부(재)	25 일일연속극 <우리 집 골단지>	30 2TV 생생정보 플러스 55 비타민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00 SBS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⑨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⑩ 50 채널A 스포츠	00 KBS 다큐1 55 스포츠	00 수목 드라마 <정사의 신 격주2015>	00 수목미니시리즈 <한 번 더 해피엔딩>	00 드라마 스페셜 <리멤버 아들의 전쟁>
⑪ 00 아내가 뿔났다(재)	00 KBS 뉴스라인 40 아름다운 청춘, 10인의 도전	10 해피 투게더	10 특집다큐 황금물고기의 전설, 영광굴비	15 지가야
⑫ 40 부르던 겁니다 머슴아들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울긁 유적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8 생활 영어 05:30 건강한 아침 05:40 만나고 싶습니다(재) 06:10 세계의 눈 07:00 지파티스(재) 07:30 꼬마버스 타요(재) 07:45 로보카 폴리 08:00 덩동영 유치원 1 08:10 통통가족 08:15 그림을 그려요 08:20 덩동영 유치원 2 08:30 두다디콩 08:40 덩동영 유치원 논 08:45 방귀대장 뽕뽕이	09:00 크레멍의 창의력 팽팡 09:40 달라졌어요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1:10 다크 오일 11:20 세계테마기행 (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연중기획 <행복한 교육세상> 13:05 역사채널 1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3:40 사이틴 시즌3-왔다! 사춘기 13:50 우당탕탕 아이쿠 14:00 초등 2학년 EBS 겨울방학생활 14:20 초등 6학년 EBS 겨울방학생활
14:40 초등 4학년 EBS 겨울방학생활 15:00 꼬마 철학자 학교 15:15 마야의 모험 15:30 세계사 시간여행 15:45 모피와 친구들 15:50 크레멍의 창의력 팽팡(재)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16:45 덩동영 유치원1~3(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17:45 로보카 폴리(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 18:05 출동 슈퍼왕스 18:2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2 18:25 아영명명 귀여워	18:4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3 18:45 스쿨랜드-한자왕국 18:5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4 19:00 플루토 비밀결사대 19:30 EBS 뉴스 19:50 사선에서 20:40 다크오일 20:50 세계테마기행 <황금미소의 땅, 미얀마> 21:30 한국기행 <발품팔아 오지기행>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22:45 다문화 교류발전 23:35 글로벌 가족정착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21일(음 12월 12일 壬寅)

子	48년생 새로운 것에 행운이 깃들여 있다. 60년생 본래 원하던 바가 없어서 비급하는 것으로 대체할 행운에 놓이게 되리라. 72년생 대책 마련으로 애써게 된다. 84년생 한계를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말병의 소지가 크다. 행운의 숫자 : 14, 26	午	42년생 각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54년생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66년생 편견을 가진다면 선입감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다. 78년생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응대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32, 20
丑	49년생 예의를 두지 말고 원칙대로 처리해줘야 뒤끝이 없다. 61년생 길길이 보이나 대단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73년생 발언하기보다는 낮은 자세로 경청하자. 85년생 이변에 제가해 버려야 후환이 없다. 행운의 숫자 : 37, 87	未	43년생 점점 한기가 사라지면서 따뜻해지리라. 55년생 놔두자니 거주장소라고 버려지니 아까울 것이다. 67년생 앞뒤 가리지 말고 무조건 밀어붙이면 실사된다. 79년생 오늘이 지출은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1, 33
寅	50년생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내면은 특별하다. 62년생 긴히 처리해야 할 일들이 겹쳐서 번거롭겠다. 74년생 차근차근 진행한다면 큰 발전을 꾀 할 수도 있느니라. 86년생 잃었던 것들을 회복할 수도 있는 양상이니라. 행운의 숫자 : 55, 90	申	44년생 사소한 문제가 발단이 되어 복잡해질 수 있다. 56년생 정곡을 제대로 찌르지 않으면 악순환만 반복될 뿐이다. 68년생 주변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판단하라. 80년생 흥한 것은 많고 길한 것은 적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54, 44
卯	51년생 너무 깊이 개입한다면 부작용이 생긴다. 63년생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이니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자. 75년생 유사하게 반복될 것이니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리라. 87년생 하던 일을 중단시키는 이변이 발생한다. 행운의 숫자 : 66, 10	酉	45년생 힐링인 만큼에 비례하여 성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57년생 길조가 흉사로 급변할 수도 있으니 끝까지 지켜보는 것이 좋다. 69년생 유능한 이들과 함께 길사를 도모할 수 있겠다. 81년생 적극적으로 응대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45, 85
辰	40년생 희색이 만연해졌다. 52년생 돈 때문에 많은 이들이 관련될 수밖에 없다. 64년생 시작만 요란할 뿐이지 별것이 없다. 76년생 진행은 되지만 성과가 시뻘적 않다. 88년생 사소한 문제가 발단이 되어 복잡해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74, 02	戌	46년생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질 것이다. 58년생 평 먹고 알 먹는 일이 생기기 일거양득이로다. 70년생 습관적인 일상에 얽매어서 규모를 줄이지 못하면 타격이 오리라. 82년생 지금 즉시 조치를 취하자. 행운의 숫자 : 71, 81
巳	41년생 해결될 것이니 조바심을 버리고 지켜고 있어야. 53년생 덩달아 복 받을 수도 있는 판국에 놓인다. 65년생 돈보일 것이다. 77년생 하지는 없으니 마음 놓고 대하자. 89년생 튀어나오려고 해도 꼭 잡고 있는 것이 없다. 행운의 숫자 : 03, 61	亥	47년생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이 나올 수 있지만 쓸 만한 것은 딱 한 가지뿐이다. 59년생 완전하게 고칠 필요가 있겠다. 71년생 치우친 주관은 위험을 자초할 수도 있느니라. 83년생 대단히 매끄럽게 풀려나가는 국세이다. 행운의 숫자 : 82, 89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